

2018.6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8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8.6.26	대전MBC 대회의실	6/11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신성철, 김경희, 함진호, 정대식, 양흥모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박선자 편성제작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사업국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0	5	-	-	15	-	15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1	4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8건	8건	6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MC 바뀜에 따라 그 역할 프로그램에 맞게 적절하게 있어야	“시사플러스” MC 교체에 따라 MC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함.	6월
보도	사건사고의 홍수 속에서도 미담관련 보도로 발굴해주길	30대 의식없는 운전자 대신 차량 세워(6/3),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6/5) 등 보도	6월
보도	방사성 핵폐기물 부실관리와 같은 유의미한 환경감시기능 보도 꾸준하게	도매시장서 판매금지 출하자 농산물 180톤 유통(6/27), 세종시 공사장 화재 소화기 태부족(6/28) 등 방송	6월
교양	TV프로그램 “모든 것 연구소 올랩” 적절한 어휘 표현을(일제시대를 일제강점기로)	백제의 미스터리 미륵사지(6/28)편에 진행자와 패널들 어휘 선정 유념	6월
보도 교양	교양 프로그램과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동일하다.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진행자 운영을	시사플러스(시사) 진행하는 아나운서 교체함. 시사플러스는 외부 전문가를 발탁하여 진행자로 함.	6월
보도	선거보도 경마식 보도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이 관심 있는 사항을 소개해주길	“키워드로 분석한 지방선거(6/11) 이렇게 투표하세요(6/12) 지역별 공약점검”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선거보도	6월
보도	현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 뉴스를 발굴	지역경력단절 여성(6/17), 장애인기능경기대회(6/27) 등 보도	6월
보도	뉴스를 모바일로 접속하고 싶다	www.tjmbc.co.kr 접속하면 모바일 기기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모바일 화면을 볼 수 있음. 카카오톡 페이지도 개설하여 시청자들이 모바일로 원활하게 뉴스를 검색할 수 있음.	6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8. 5. 01.~2019.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비고(임기)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대전여성정치 네트워크	여성단체	18.05.01~ 19.04.30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위원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8.05.01~ 19.04.30
위원	정대식	금성백조주택 사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8.05.01~ 19.04.30
위원	이용원	월간 토마토 편집인	(사)문화유산올림	문화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종남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김경희, 권부남, 정대식, 이용원, 김종남, 양흥모, 양선희 위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6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시사토론 M “역사 반성과 평화, 골령골부터” (6/24)을 시청하였다.</p> <p>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주제 선정이었다고 본다. 패널도 사안과 직접 관련된 인사들로 선정해서 깊이 있는 토론이 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1시간 정도 토론 시간 동안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면이 있었다. 그리고 스튜디오 인테리어가 세련되게 잘 바뀐 것 같고, 아래 자막도 적절하게 잘 삽입되고 디자인도 좋았다(김은주).</p>	<p>시의성 있는 주제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제작자들이 애쓰고 있다. 자막과 스튜디오 세트 등도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p>			
교양	<p>시사플러스(6/25) “청정장수마을 옆 헬기공장 “</p> <p>가. 헬기공장</p> <p>환경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사회 분위기에서, 주제 선정을 잘했다고 본다. 자동차와 달리 헬기에 대한 매연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다는 점이 충격적으로 와 닿았다. 관련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을 두루두루 인터뷰해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매연, 소음 등 세부 주제별로 주민들과 균형 담당자의 인터뷰를 각각 보여주고 관련 법령 등 자료를 분석해줘서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다.</p> <p>나. 최저임금법 개정논란</p> <p>근로자뿐만 아니라, 영세상인들의 입장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 문제를 언급해 주긴 했지만, 조금 더 균형 있게 다뤄주면 좋았겠다. 근로자 입장과 더불어 사용자 입장도 들어보아야 균형된 시각으로 제작되었음이 확인될 것이다(김은주).</p>	<p>다른 매체에서 이미 보도된 사안이 아닌 새로운 아이템 발굴과 함께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더 매진하겠다.</p> <p>최저임금법 개정 논란 아이템의 경우 경제인단체나 자영업자의 인터뷰도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한다. 다만, 앞으로도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p>	○		
보도	<p>6월 24일 방송된 시사토론 -역사반성과 평화, 골령골 부터 를 시청하였다</p> <p>마침 산내민간학살현장이 방치 되어 있다는 글들을 보던차에 이문제를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를 다룬 것이 반가웠다.</p> <p>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p> <p>1. 어차피 편집해서 보낸다면 질문뿐만 아니라 토론자들의 토론내용 중 중요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해주면 시청자들이 시사토론</p>	<p>한정된 시간에서 폭넓게 주제를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가급적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남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다 가독성 높은 자막과 편집 등에 신경 쓰겠다.</p>	○		

	<p>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시청자들에게 좀 더 친절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p> <p>2. 토론자의 뒷 배경으로 평화교육연구소의 다큐멘터리 제작 제목을 사용했는데 황인호 당선인의 토론시 글씨가 가려 중간에 시청하게 될 경우 글씨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시청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p> <p>3. 마지막 토론을 마치면서 사회자가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도록 하고 그냥 마쳤는데,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토론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었으면 좋았겠다(권부남).</p>				
<p>보도</p>	<p>선거방송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후보자중심의 경마식 보도, 흥미위주 가십보도 위주였다면 최근 보여준 선거 보도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 유권자 입장에서 본 선거보도가 눈에 띈다. “키워드로 분석한 지방선거, 이렇게 투표하세요” 등등 천편일률적 선거보도에서 벗어나 유권자 입장이나 유권자를 배려한 선거보도로 전환해 새롭게 개선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듯했다.</p> <p>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방송을 하였다면 그 날 토론방송을 편집하여 다시 한 번 시청자들에게 후보자별로 대비되는 이슈, 정책적 차별 등 의미 있는 토론결과 뒷보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빠져 아쉽다. 토론방송 예고PR은 자주 볼 수 있었는데 반면 선거토론방송 이후 이를 정리한 보도가 없었다. 선거토론방송의 사후적 관리가 약하다(양선희)</p>	<p>선거보도에 있어서는 경마식 보도를 지양하자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 보도 방향이었습니다. 또한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템 발굴에 더 주력하였다.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보다 더 많은 정책 검증 작업을 시도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고 앞으로의 선거보도도 이런 형태를 지향해 나갈 계획이다. 토론방송의 뉴스화는 선관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p>			
<p>보도</p>	<p>뉴스앵커가 출연자와 직접 대담을 하기도 한다. 앵커가 질문을 할 때 앵커 1shot이 아니라 출연자와 함께 2shot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질문을 할 때는 앵커 단독 shot이 적절하다고 본다(양선희)</p>	<p>앵커 질문이 길어질 때는 투샷에서 원샷으로 시점 이동했다가 다시 원샷으로 돌아오는 디렉팅 방법으로 진행했다. 앞으로 더욱 전달력 높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p>○</p>		

<p>보도</p>	<p>라돈침대 뉴스를 보면(6/18, 6/19, 6/22) 동일 영상이 계속 반복하여 노출되고 있다. 같은 영상을 반복하여 사용하다 보면 프로그램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양선희)</p>	<p>가급적 뉴스 내용이 달라질 경우 영상을 보강하고 재촬영하고 있다. 한정된 인력이지만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상 업데이트에 최선을 다하겠다.</p>			
<p>보도</p>	<p>평일 뉴스 앵커가 주말 뉴스 앵커로도 등장한다. 안정적인 시청자구축이라는 점에서 평일과 주말은 각각 별도로 앵커를 고정하여 운용하면 좋을 듯싶다(양선희).</p>	<p>앞으로 인력 보강 등과 연계해 참고하겠다.</p>		○	
<p>교양</p>	<p>전문가가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다.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한다는 점,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고, 진행 미숙으로 인한 시청자와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점,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부정적인 부분일 것이다. “시사플러스” 현재 진행자는 진행속도가 많이 느리고 답답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큐 카드 아닌 A 4용지를 들고 진행하는 모습도 좋지 않게 보인다. 개선을 바란다(양선희)</p>	<p>전문 진행자를 기용하는 것과 외부인을 기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선택의 문제일수 있다고 본다. 현재 진행자가 프로그램 진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향후 차차 개선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현재 큐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p>	○		
<p>교양</p>	<p>“모든 것 연구소 ALL LAB”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모두 남성이다. 프로그램 진행자만 여성이다. 패널의 성별을 다양하게 구성하길 바란다(양선희).</p>	<p>물론 남녀의 성별을 고르게 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동의하며 의도적으로 여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이템별로 전문가 섭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		
<p>보도</p>	<p>“시사토론 M”이 시사토론 프로그램이다 보니 더욱 그러하겠지만 주제와 구성방식이 무겁다. 스튜디오 분위기 또한 무겁다. 생각하기 나쁘다고 본다. 스튜디오 분위기를 한층 가볍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TV프로그램 “ALL LAB” 마냥 다소 파격적 시도를 가져보는 것도 그 한 방법이라고 보겠다(이용원)</p>	<p>시사토론에서는 시청자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부터 우리 사회의 병폐까지 다양한 주제가 있을 수 있다. 심각한 주제를 가볍게 끌고 갈 수 없듯 시사토론은 시사토론만의 진중함을 가져야 한다고 보지만 주제에 맞는 다양한 포맷을 고민해 보겠다.</p>		○	

교양	지역의제를 찾아 단순히 이런 것이 있다고 던지는 성격이 아니라 끝까지 이슈를 추적하는 것이 탐사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시사프로그램으로 타이틀을 갖고 있는 “시사플러스”는 이 점을 명심하여 제작했으면 한다(이용원)	현재 시사플러스가 10년을 넘어 오랜 기간 제작되고 있는데 내용과 형식에서 좀 더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			
보도	시사토론 M 진행자나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오프닝을 할 때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진행을 한다. 클릭을 하다 보니 어깨가 올라간다.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이용원)	진행 방식에 있어서 최근의 추세는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스러움을 살리면서 시청자들이 보기에 어색함이 없는 여러 가지 기술적 대안들을 검토 중이다.		○	
보도	시사토론 M “역사 반성과 평화, 골령골부터” (6/24)의 패널 구성이 좋았다. 시제도 좋았는데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 패널들의 발언이 비슷하고 진행 또한 지루했다. 전체 구성을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한다 전체 구성을 분화하여 내용을 분류, 세분화하고 자막처리 또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김중남)	섭외에 있어서의 시급함, 지역 사회에서의 전문가 풀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채로운 패널 구성에 주력하고 구성에 있어서 더욱 신경 쓰겠다.		○	
교양	“TV특강” <똑똑한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인생>(6/4)편을 보니 “좋은 대학(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고 기회도 더욱 많이 열린다” 등등의 말을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로 가자’라는 말을 공중파 방송에서 할 수 있을까? 이 방송을 본 지방에 남아 있는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생방송 아닌 녹화 프로그램에 사전에 거르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김중남).	강연자는 강연 내내 누구든지 본인이 가고자하는 마음과 가려는 방향성만 있으면 어디에 있든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문제가 되었던 이 발언은 학벌 조장이나 지역 차별의 의도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방향성을 믿고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된다는 일종의 동기부여라고 본다. 흡수저 배경에 내세울 것 없는 전문대 출신이라고 본인을 강연 서두에서 밝혔듯 좀 더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본인의 경험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강연자와 제작자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아쉽다.		○	
보도	충남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자유한국당 후보가 승리한 지역을 보면 보령, 서천, 홍성 예산 등이다.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인터뷰를 보면 얼굴 노출 없이 오디오 처리를 하고 있다. 보수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 숨겨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데 본인들이 원해서 노출을 안했는지 궁금하다(양선희)	본인들이 원해서 노출을 안했다. 초상권에 대한 언론 관련 법과 제도 등이 강화되고 있어 인터뷰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알 권리와 개인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지에 대한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